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황해영(인하대학교)**

김영순(인하대학교)***

<국문초록>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출신 국가나 민족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이다. 이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역할 수행과 대처를 포함한 총체적인 취업 경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취업을 위한 역량 함양 등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8명으로 선정하였으며 개인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한 중국동포 출신결혼이주여성들은 능숙한 한국어 구사능력과 중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하여 직업현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구직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취업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일용직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역시 저임금 불안한 직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의 취업 경험은 한국사회 경력단절 여성취직의 한계점과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여성취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어야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필요 및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우선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 취업 경험, 현상학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802).

** 제1저자: 인하대학교 글로벌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팀 연구교수 (haiying04@hanmail.net)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kimysoon@inha.ac.kr)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경험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동기, 어려움, 교육적 수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거주도 초기 적응을 넘어 장기거주의 형태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연령대도 30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을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취업교육을 통한 경제활동 장려정책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도 취업에 급급한 나머지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으로 직업현장에서 다양한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많은 연구물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스로의 역량개발을 통해 능동적인 시민성을 확보하도록 촉진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양인숙, 민무숙, 2010).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70%이상이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병숙 외 2010, 김영혜 외, 2009) 경제활동 참여율은 30%를 조금 웃도는 낮은 수준이며(설동훈 외, 2008), 주로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의 임시근로자(30.0%) 또는 일용근로자(14.3%)로 종사하고 있어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는 그들의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점점 그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직활동에 대한 연구물들이 출현하고 있다. 공수연, 양성은(2014)은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취업동기, 준비과정, 미취업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핵심주제(essence)는 ‘모성’이고,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며, 주부의 역할과 병행한다. 이들은 구직과정에 장벽에 부딪치게 되고 그들은 미취업에 대한 귀인을 노력, 운과 같은 개인 차원과 한국의 고용불안정, 낮은 다문화 수용도와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설명한다.

전은희(2014)의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하에 구직활동과 취업에 나서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경제

적 이해는 구직의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또 이들은 사회참여와 직장생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으며, 우울증과 고립감으로부터의 탈피, 한국어 습득과 한국사회 이해 등을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김효순(2016)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기업에서의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할 자신이 생기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동료들을 이해하며 한국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새봄, 정진화(2016)는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과 취업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적자본과 취업과의 연계성이 출신국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인적자본의 전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이주여성의 모국 인적자본이 국내 취업 취업직종에 미치는 영향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재한 중국동포 출신 출신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모국에서의 대졸학력은 출신국가群에 관계없이 국내 전문직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 모국에서의 취업 경험은 OECD 비회원국의 전문직 취업확률을 높이고 회원국의 비전문직 취업확률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취업활동에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통하여 자신감을 획득하고 있었고 한국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출신 국가별 민족별 다양한 집단에 속한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다. 그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큰 틀에서보다는 특정 집단별 취업 경험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집단 중에서도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민족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기타 결혼이주여성 집단과는 다른 적응양상을 나타내기에 그들의 취업 경험 역시 일반화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대상별, 지역별 취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취업교육 지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경험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들의 취업 동기, 어려움, 교육적 수요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장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가?

II.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이해

1.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 현황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귀화자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306,995가구로 이 중 결혼이민자 가구가 85.7%이다. 그 중 여성 82.7%, 남성 17.3%으로 2015년에 비해 여성이 약간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 30대가 35.1%로 가장 많고, 한국 거주 기간은 10년이상 거주자가 60.6%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과 비교해 10년 이상 거주자의 비중은 12.7% 증가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장기거주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출신국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1.1%로 가장 많고, 베트남 23.4%, 중국 19.3% 순,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을 상회한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친구·동료 소개 31.5%, 스스로 24.6%, 결혼중개업체 21.1%, 가족·친척 소개 19.0% 순으로 2015년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친구·동료 소개를 통한 결혼은 2015년의 27.4%보다 더 증가함을 보인다(여성가족부, 2018).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는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중에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에 의해 팔려오다시피 한 존재’라는 인식과는 달리 세계화 시대 그들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다양한 만남의 경로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재한 중국동포 출신들은 이주로 인한 직업의 하향평준화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무시, 편견,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황해영, 김영순, 2017).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은 한국 내 문화적응을 빠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투나 억양을 사용하는 언어적 차이는 한국인들이 재한 중국동포 출신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변수가 되었다(이민혜 외, 2013). 실제로 외국인을 볼 때 우리의 인식이나 시선은 ‘이중적 기준’(double standard)의 잣대를 가지고 본다(오창우, 이현주, 2011). 즉, 한국보다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보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월적인 시선을 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나뉜다(황해영, 김영순, 2017).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조선족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중국인’ 혹은 ‘기피 업종에 종사하는 최하층 노동자’라는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무시, 편견,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은 한국 내 문화적응을 빠르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기

도 하지만, 다른 말투나 억양을 사용하는 언어적 차이는 한국인들이 조선족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는 변수가 되었다(이민혜 외, 2013).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어려움과 한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라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의 한국생활의 모습들은 기타 외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중국에서 온 한족들과도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들은 언어적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의 긴장을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황해영, 김영순, 2017). 또한, 국내 재한 중국동포 출신 이주민들이 수적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에 대해 형성 및 고착화되어가는 새로운 스테레오타입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을 감당해나가야만 하는 현실이다. 여러 출신국 사이에서도 한국계 중국인의 취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어 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혜원, 김상호, 2010). 따라서 그들의 취업동기 취업 이후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들만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도 및 그들의 한국사회에서 취업을 통한 적응양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 스스로 취업 욕구가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전미경, 2017). 201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은 66.4%로 일반 국민보다 3.3%가 높고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주요 경제활동 참여 인구인 20~40대가 78.5%로 가장 많고,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60.6%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는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 요구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서비스 요구도 조사에서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소개에 대한 요구가 3.51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여기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010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도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박중대, 박지해, 2014). 이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상담에서부터 취업기초소양교육, 직업교육훈련, 인턴제 운영 및 취업 적합 직종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전

미경, 2017).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취업 욕구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음 <표 1>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의 개요를 제시했다.

<표 1>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취업현황

(단위: %, 명)

구분		취업	미취업
전체(304,516)		63.9 (194,641)	36.1 (109,875)
성별	여성	59.5	41.5
	남성	83.4	16.6
연령	29세 이하	49.0	51.0
	30~39세	64.2	35.8
	40~49세	75.9	24.1
	50~59세	78.9	21.1
	60세 이상	40.2	59.8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포함)	54.2	45.9
	중학교 졸업	64.4	35.6
	고등학교 졸업	65.7	34.3
	대학 졸업 이상	64.6	35.4
출신 국적	중국	63.5	36.5
	제한 중국동포	72.4	27.6
	일본	51.5	48.5
	대만 홍콩	64.1	35.9
	베트남	57.2	42.8
	필리핀	58.1	41.9
	그 외 동남아시아	49.1	50.9

출처: 여성가족부(2016). p.171.

<표 1>에서 나타나듯 제한 중국동포들의 취업률이 72.4%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은 구직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가 5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경력 부족(29.8%)’, ‘한국어 부족(29.6%)’, ‘외국인에 대한 차별(20.1%)’ 등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2018년 여성가족부 통계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취업한 비율은 66.4%로 일반 국민보다 3.3% 높고, ‘15년(63.9%)에 비해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지만, 30~40대 연령층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낮음을 나타낸다. 이는 취업시장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의 인적자본과 잠재력이 풍부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개요 및 연구참여자

이 연구는 해석주의에 입각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수행했다. 실증주의 대별되는 해석주의는 인간이 다양한 동기, 가치, 의식을 지닌 존재로서 양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총체적 구성단위로 보고 인간과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주체로 본다(서미경, 2012). 이런 해석주의적 입장에서 인식 대상은 연구자로부터 독립되어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인 내부자 관점(emic perspective)에서 경험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히 해석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으로 매우 유용하다. 경험이 갖는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해 파악하고 도출 수 있기 때문이다(김분한, 박인숙 외, 1990).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집단은 30~40대의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이며, 전형적 사례선택(typical case selection)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조용한, 2008).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한국에서 1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단순 생계가 아닌 다른 목적의 취업 경험에 대하여서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취업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연수는 10년 이상이고 거주지역은 광역시였다. 본 연구에 채택된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이름(나이)	가족사항	학력	결혼연령(차)	현재직업	현재배우자 직업	거주형태
연구참여자 1 (38세)	남편(43), 딸(16), 아들(11)	고졸	22세 (16년차)	자영업	자재회사	자가
연구참여자 2 (38세)	남편(50), 딸(18) 아들(16세)	고졸	22세 (16년차)	전문직	자재회사	자가

연구참여자 3 (39세)	남편, 아들(9세)	대졸	30세 (9년)	중국어강 사	회사원	전세
연구참여자 4 (46세)	남편, 딸, 아들	대졸	38세 (12년차)	이중언어 코칭강사	자영업	전세
연구참여자 5 (45세)	남편(48), 딸(17), 아들(12)	고졸	27세 (18년차)	방통대 재학 중	회사원	전세
연구참여자 6 (41세)	남편(51), 아들(10), 딸(7)	대졸	31세 (10년차)	인터넷 쇼핑몰	회사원	전세
연구참여자 7 (46세)	남편(49), 딸(7세)	고졸	40 (6년차)	하푼길 도우미	회사원	전세
연구참여자 8 (42세)	남편(50), 딸(12), 아들(10)	고졸	39 (13년차)	회사원	자영업	자가

다음 <표 3>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 취업 경험을 보면, 이주 전부터 직장생활을 하였고, 결혼하여 한국에 살면서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정기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녀가 크면서 다시 취업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전전하고 있었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취업 형태 변화과정

연구참여자	이주 전 직업	이주 후 전 직업	현재 직업	희망 직업
1	회사 회계	산업연수생, 가구공장	식당운영	현재와 동일
2	식당 서빙	산업연수생	화장품회사 실험연구원	현재와 동일
3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국어강사	복지사, 중국어강사
4	한국회사 통역	중국어강사, 면세점	이중언어 코칭강사	이중언어 코칭강사
5	회사 사무직	부업, 화장품 제조업	대학생	공무원, 전문직
6	교사	공장 단순노무, 이중언어강사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7	호텔 청소	식당, 공장	하교길 도우미	정규직
8	통역, 가이드	식당, 공장	회사 파트타임	학습지 중국어강사

연구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발전,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취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

은 무급 가족봉사보다는 대가가 주어지는 취직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누리하고자 하였으며 취업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교육이나 지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7개월이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회 면담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면담장소는 조용하고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집이나 대상자의 근무지 및 커피숍 등을 활용하였다. 면담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고,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였으며 연구자가 참여자에게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기 위해 개방적이며 비구조적인 질문형태를 유지하되 연구참여자들이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반복하여 질문을 하여 연구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인터뷰 질문지 그리고 연구참여 동의서 등은 I대학교 IRB 심의를 거쳐 통과된 자료를 활용함으로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규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Giorgi의 분석과정을 따라 수행되었다. Giorgi는 연구 대상의 불변의 측면을 사고과정을 통해 부단히 도출해 내는 자유연상법(free variation)에 의해 경험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했다(Giorgi, 2004). 이러한 원리는 자료의 분석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단계는 전체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기술내용 읽기(Read the description for the sense of the whole), 2단계는 기술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기(Divide the description into meaning units), 3단계는 의미단위를 가장 근접한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기(Transform meaning units into best disciplinary expression), 4단계는 전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Synthesize transformed meaning units into structure)이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8명의 진술을 전사하여 전사된 텍스트를 면밀하게 읽으며 전체적 내용을 파악한 후(1단계),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마다 ‘의미단위(meaning units)’를 나누었다(2단계). 74개로 도출된 의미단위들은 가장 적합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3단계).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의미단위들은 8명의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을 나타내는 단위로 묶어 3개의 하위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는 다시 시·공간적 맥락과 인과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경험의 본질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제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 여성의 취업 경험은 3개의 구성요소로 구조화되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경험을 이루는 구성요소의 도출과정은 다음 <표 4>와 같이 취업 경험을 이루는 본질로 3개의 상위 구성요소 5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귀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 4> 취업 경험의 구성요소

의미단위	중분류	대분류
인정받지 못하는 중국에서 직업경험		
선택 폭이 좁은 취업교육		
취업과는 거리가 먼 자격증 공부	막막한 현실, 구직의 어려움	
다양한 직업 전전		구직경험
의욕대비 기회의 부족		(좌충우돌 일자리 찾기)
진공 연계 자격증 찾기		
취업 상담을 통한 다각적 구직활동	다각적인 노력, 장점을 살리기	
창업을 통한 해외시장 노리기		
학력취득을 통한 전문성 살리기		
더듬어 배워가는 직업의 세계		
단발적 시행사업 지속성 부족으로 불안한 직장	불투명한 직장생활	
저임금,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직업세계		직장경험
차별로 위축되는 자아		(냉담한 직장생활 현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기		
치열한 노력으로 인정받기	노력, 역량강화, 변화의 시도들	
다른 기회를 찾아보기		
두 번 참고 한번 목소리 내어보기		
특기를 살려서 한국에서 인정받기	부족한 현실에서	장래희망
비전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꼭꾸는 내일	(미래를 향한 도전)

1. 좌충우돌 일자리 찾기

가. 좁은 취업의 문, 구직의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구직은 결코 쉽지 않았다. 더욱이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직장생활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중국에서 직장 경험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결혼 전 또는 자녀 출산 전까지 직장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통계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재한 중국동포 출신의 취업률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함으로 그들의 취업열정을 여실히 보여준다(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2018). 그들은 민족적 동질성으로 한국어 습득이 빠르고, 중국에서 양성평등의 문화속에서 성장하였기에 취업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들로 그들은 취업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의 중국에서의 학력, 직장경험은 한국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이는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학력, 경력이 필요 없는 공장 단순근무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이다.

“중국에 있는 자격증을 한국에서 인증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한국 자격증으로 다시 공부하라고 하니깐 4년이란 시간을 헛되게 보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해주는지 그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제가 처음 한국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중략)...저는 좀 많은 일들을 했는 거 같아요. 회사도 다녀봤고 학습지 선생님도 해봤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여기 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도 좀 오래 했고.”(연구참여자 6)

하지만 그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직장내 무시 등 다각적인 원인으로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정부 시책에 의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지지폭이 확대되면서 일부 고학력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인 이중언어 코칭, 강사, 다문화 강사 등 직업에 도전하고, 일부는 취업교육 그리고 자격증공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취업교육은 요리, 커피 바리스타, 컴퓨터 활용 등 몇몇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했고 땀겨드요. 근데 문제는 따면 뭐해요. 그것을 가지고 취직을 이어주는 기관이 없잖아요. 말로는 자격증을 따면 다 해결해줘요 하는데 해결은 안 해주고 본인이 직접 어떤 기관에 가서 찾아서 가야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연구참여자 5)

“저도 이제 센터에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갔다 와서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동부에 가서 취업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직업상담사분은 어쨌든 저는 교육학도 전공을 했고 여기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도, 이쪽 분야를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역회사 쪽으로 자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는 아직도 이제 인정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연구참여자 3)

그들의 취업욕구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작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넘치는 구직 의욕 대비 취직의 길은 좁고도 험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직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취업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구직활동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깊숙하게 진입을 하고 적응에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직장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적인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나. 다각적인 노력, 장점을 살리기

좁은 취업의 길에서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틈새를 노려 다각적인 구직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은 중국에서 유치원 교사 경력을 살려 연수를 받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잠깐 근무를 한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중국어 강사로 직업을 전환한다. 한국인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은 무리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인 중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중국어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 연구참여자 6은 중국에서 교사였지만 한국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장, 일용직을 전전하다 이중언어 강사를 한다. 하지만 이중언어 강사도 센터 통합으로 예산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한다.

“제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어른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이런 신발, 근데 대신, 유아용품, 유아 의류, 유아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고 판매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제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지금 딱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슬럼프가 오고 있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배워가면서 창업을 시작했지만 해외시장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 유아보조교사에 취직했지만, 비전이 없음을 느끼고 다시 벤처기업 창업교육을 통해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구직활동을 통해 다양한 취직의 기회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시도로 창업에도 도전하는 적극적인 주체였다.

2. 냉엄한 직장생활 현실에서 견뎌보기

가. 불투명한 직장생활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직한 직장이지만 직업의 세계는 냉엄하였다. 이중언어 강사, 이중언어 코칭, 다문화 강사는 대부분 정부기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라 정확한 업무 매뉴얼이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기에 연구참여자들도 중국어를 잘 알지만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듬어 배워나가야만 하는 현실이었다.

“저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역량을 키운다면은 만들기보다는 교육 쪽으로 역량을 키우고 싶어요. 우리는 교육 쪽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5일 동안 3일에서 5일 정도 교육받고 그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뭘 선생님 박사하는 것처럼 뭐가 뭐 전문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교육적인 면에서 많이 또 좀 아직 체계화가 좀 안 되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거 이중언어 아직 그…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육 방법 같은 것도 지침 같은 것도 그렇고. 찾아가면서 하는 더듬어 가면서 가는 이제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어려워요.”(연구참여자 4)

또한, 자주 바뀌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면서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분야를 배워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의 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중국 엄마로서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몸소 체감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 직장은 그의 새로운 배움터로 되어 새로운 역량을 배양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임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점점 초기의 열정들이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일단 그 업무가 좀 많았어요. 다른 사회복지사들에 비해가지고 업무가 많았고, 그 대신 육아 정부 나눔터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업무가 많고, 근데 센터장님 저를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제가 거기에 근무했을 때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제 위에 있는 직원이 나를 너무 괴롭혔던 거 같아요. 너무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진짜 저는 거기에 발령받고 사실은 저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히, 저에 대해서는 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너네들 못지 않게 내가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애들 데리고 가서, 애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가서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연구참여자 6)

이밖에도 연구참여자들은 공통된 어려움으로 직장내 차별을 말하고 있었다. 임금 차별, 인권침해, 외모차별, 출신국에 대한 비하, 보이지 않는 무시의 시선들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위축되었다고 한다.

“저는 이거를 그냥 처음에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한국 이제 저도 이제 음… 한국에 주위에도 한국인들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얘기 했는데 친

한 한국 이제 이웃이 저보고 얘기 이렇게 이거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를 조금 이해 못 한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숨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센터에 와서도 누가 먼저 물어 안 보면 잘 안 할라 그래요.”(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중국출신이 많거나, 직업 특성상 중국어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직장 내에서 별다른 차별은 못 느낀다고 하지만 구직과정, 또는 다른 나라 출신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부터 다문화 출신배경에 대한 불편함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당당하게 밝히던 출신배경에 대하여 자존감이 하락하고 위축되어 숨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 노력, 역량강화, 변화의 시도들

직무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들은 직장 동료, 상사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거나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역량을 강화해나간다. 또한, 남들보다 더욱 피나는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업센터 취업 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새로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을 한다. 직장 내 차별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약이지 하는 소극적인 대처로 버티거나, 두 번 참고, 한번 소리내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도 한다.

“시간이 약이지 뭐. 점점 지나다 보면. 난 항상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해줘요. “아니 뭐 한국에는 나쁜 사람 없냐고, 똑같지 않냐고. 이 찌꺼한 땅덩어리에서도 죽이고 살리고 생난리를 치는데 그 큰 데서 왜 그런 게 없겠냐.” 조선족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여기 한국 사람들 다 좋지 않은 것처럼.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면.”(연구참여자 1)

“티가 났으면? 차별을 당했을까봐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차별 당할까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보이니까. 보통 그런- 한쪽들이 특히 그런 이제 모였을 때 이야기하다 보면 친정에다가 돈 보낼 까봐 돈도 안 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나는 받았어. 엄마가 올 때마다 뭐 이제 저기 난 그래도 이거 집 살 때도 엄마가 ‘돈 좀 보낼까?’ 그러고”(연구참여자 2)

또한, 재한 중국동포 출신출신 범죄로 인한 비난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나쁜 사람 없나’는 말로 대처하면서 중국에 대한 좋은 점을 알려가면서 편견에 대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돈 벌어서 친정에 보낸다는 말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 보편적인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시간

이 흐르면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었다.

3. 미래를 향한 도전: 부족한 현실에서 꿈꾸는 내일

연구참여자들은 불안한 현실의 직장생활 속에서 복지, 상담 등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조금은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직장생활을 원하고 있었다.

“계획은 이제 저 같은 계획은 조금 더 쇼핑몰을 조금 더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죠. 진출을 해서 그리고 이게 제 생각이예요. 제 꿈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결혼용자나 다문화 가족한테 조금 복지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제 풀칠하기도 바빠서. 그런 생각이예요.”(연구 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중국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을 넓혀가고 싶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 한국제품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중국시장 개척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일적인 성공을 넘어서 그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어려움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후원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의 언어적인 강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발달 사업에 기여를 하고 싶어 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복지적인 일을 보람 있게 생각하였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및 후원도 생각하고 있었다. 즉 취업 경험을 통해 사회적 심리적으로 성숙한 자화상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대학 대졸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나이 조금 있어도 어차피 학습지니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거를 자기 기초를 잡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내가. 음... 사실은 저는 가르치는 거보다 회사생활이 저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연구참여자 5)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을 이방인이 아닌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시혜 대상이 아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였다. 이주여성에게 취업은 사회적응을 위한 영향 요인(양옥경 외, 2009; 최혜지, 2009)인 동시에 적응에 대한 결과적 산물(설동훈·윤홍식, 2008; 정기선, 2008)이며 또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이 그들이 자신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자본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자 기회가 되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과 구직경험, 직장경험의 수행과 대처를 포함한 총체적인 취업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재한 중국동포 출신결혼이주여성들은 능숙한 한국어 구사능력과 중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하여 직업 현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구직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취업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일용직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역시 저임금 불안한 직장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지만 저임금, 불안정한 직장, 체계성이 부족한 정부시행 사업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있었고, 다양한 자격증 획득,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중국어 전문 강사, 또는 중국 시장을 노린 쇼펍업 사업을 확장하고자 기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취업 경험을 통하여 심리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고 한국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맞닥뜨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도움 받는 사람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재중동포 여성들은 중국에서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경험하고 일찍부터 취업해 사회생활을 한 경험들이 있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여성이 먼저 상업을 뛰어난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친척 방문으로 시작된 한국 이주가 조선족들에게 돈벌이의 기회로 활용되면서 여성들이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노동이주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이혜경 외, 2006). 연구참여자들 역시 강력한 취업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양육으로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면서 부업을 하거나, 화장품 영업 등 아르바이트 성 직업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의 자기발전을 위하여 자녀양육 기간에도 틈틈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 특히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상 언어적 우세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신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취업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학력, 경력부족의 어려움을 언어적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격증 취득, 학력 신장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단순노무, 저임금, 잦은 이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사회 여성취직의 한계점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여성취업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어야만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필요 및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볼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공신력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혜원, 김상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언어· 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수연,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 김병숙, 안윤정, 송혜령 (2010).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235-258.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8-1220.
- 김새봄, 정진화 (2016). 결혼이주여성의 인적자본과 취업: 출신국가에 따른 비교. **여성경제연구**, 13(1), 21-50.
- 김영혜, 손기영, 박상희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효순 (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기업에서의 노동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1(단일호), 41-77.
- 박종대, 박지혜 (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 서미경 (2012). 중 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9(1), 199-226.
- 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 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14(1), 137-168.
- 양인숙, 민무숙,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창우, 이현주 (2011). TV 가 재현하는 다문화 현실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재귀적 해독. **언론과학연구**, 11(3), 147-180.
- 이민혜, 이현경, 김수, 장연수 (2013). 조선족 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38-450.
- 이혜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지**, 40(5), 258-298.

- 전은희 (2014).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 1-35.
- 조용한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황해영, 김영순 (2017).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인정투쟁 경험과 의미. **교육문화연구**, 23(4), 459-479.
-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y*, 33(1), 1-18.
- Giorgi, A. (1970).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공역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논문 접수: 2019년 4월 1일

논문 심사: 2019년 5월 14일

게재 승인: 2019년 5월 20일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Korean-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Haiying, Huang & Youngsoon, Kim(Inha University)

Among Korean women who are married, the group with the largest distribution based on the country or ethnic characteristics of their origin is Korean-Chinese. This study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married women of ethnic Koreans in China, their experiences in the labor market, their overall employment experience, including their role performance and handling, and sought suggestions such as policy measures for married women and capacity building for employment. Eight stud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orean-Chinese marriage migrants were exposed to the job scene a lot because of their proficiency in Korean and Chinese. They were working for various jobs and had experience using job-related education and counseling. Most of them had experience working in factories and daily jobs, and they were currently staying in low-paying, insecure jobs. Their employment experience has been the same as the Korean society's career cut-off female employment, suggesting that the difficulty of marriage-based women's employment can be solved together only when the overall opportunities for women's employment are expanded. Considering the growing need and desir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ioritiz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strengthening basic vocational skills in order to promote continued and stable economic participation.

★ **Key words:** Korean-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Job experience, Phenomenology